

## CSR 활동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천동필 (부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조교수)\*\*

우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 부연구위원)\*\*\*

### 국 문 요 약

한국 정부는 기술기반 창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정책은 생존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기본가정인 계속기업의 가정을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수단인 발굴 또한 중요하다. 국내외 연구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을 주요 전략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CSR 활동이 벤처기업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탐색적 연구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기업 중심, 설문조사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부승인통계 원시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성장단계 별 CSR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에서는 CSR 활동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고도성장기 부터 적극적인 CSR 활동을 수행한 기업이 CSR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도성장기 부터 벤처기업의 규모효율성은 CSR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CSR 활동이 고도성장기 이후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규명한 진취적인 연구이며, 관련 정책 및 현업 의사결정자들에게 CSR 활동이 경영성과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안한데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핵심주제어: 벤처기업, 경영성과, 성장단계, 자료포락분석(DEA), 윤리적 CSR, 자선적 CSR

## 1. 서론

한국 정부는 기술창업 및 벤처기업의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7년 5월 기준 벤처기업은 34,124개로, 최초 통계가 작성된 1998년 5월의 수인 304개와 비교하여 100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미순·최은식, 2017). 현 정부는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기치로 걸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2017년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3년 생존율을 77.4% 제시하였으며, 생존율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해야 하며, 생존율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 지표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단순한 생존 여부가 아닌 점진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개선시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기업의 생존율과 더불어 종합적인 각도로

벤처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벤처기업의 생존율, 성장성, 일자리 창출 능력은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1998년 이후 시작된 1차 벤처붐시대부터 보고되고 있다(이미순·최은식, 2017).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규모와 업종을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다. 기업에게 CSR은 선택 가능한 권장사항이라기 보다는 생존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으로서 기업환경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고성천·박래수, 2011). CSR이 단순히 기업의 자발적, 자선적 노력의 개념을 넘어 이제는 기업의 장기 생존에 요구되는 필수 과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조민기 외, 2014).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핵심 관리수단으로써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김익성, 2006). 이처럼 기업의

\* 본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No.2017R1C1B5015674)

\*\* 주저자, 부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조교수, performance@pknu.ac.kr

\*\*\* 교신저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 부연구위원, woocw@stepi.re.kr

· 투고일: 2019-10-23 · 수정일: 2019-12-23 · 게재확정일: 2020-02-0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CSR은 중요한 전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환경 하에서의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황이다. 이는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일반 중소기업 환경하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김종원 외, 2010).

기존 선행연구의 특징은 대기업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설문조사 중심의 효과성 규명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Wang & Bansal(2012)는 신생 벤처기업에서의 CSR활동은 신생기업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CSR활동을 추진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CSR이 벤처기업에서 또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하나, 이는 특정 단계에 주목을 하거나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못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한다.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진행한 본 연구의 독창성은 목적, 연구설계, 분석방법론에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생존 여부에서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관점을 확대하여,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 별로 CSR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승인 통계의 원시자료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CSR과 DEA, 그리고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분석데이터 및 연구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4장에서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5장에서 연구의 요약, 중요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II. 선행연구

### 2.1 CSR 선행연구

과거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CSR을 추진하기에 인력·자본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윤상용 외, 2017). 대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CSR 실천규정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도 정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CSR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CSR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CSR 관련 연구는 CSR 활동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 CSR 평가방법, 공급망관리에서의 CSR, CSR 결정요인, 장애요인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Hammann et al. (2009)은 독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SR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SR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회사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직원, 고객, 사회를 위한 CSR활동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윤현덕 외(2012)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공급망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SC-CSR: Supply Chain-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현재의 사회적 책임 이행정도가 SC-SCM의 이행요구에 의해 미래 사회적 책임 이행의지가 제고된다는 것을 밝혔다. 김은정 외(2016)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SR활동이 기업 이미지와 기업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SR활동을 경제적 책임, 법·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하였다. 소비자들은 중소기업 CSR활동 중에서 경제적 책임활동과 자선적 책임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용 외(2017)은 기존의 CSR 평가항목들의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CSR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경영자, 학계,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CSR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사계층분석(AHP)을 통해 평가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CSR 평가체계를 경제적가치(지속가능성)와 사회에 대한 기여(상생협력)로 나누었다. 학계와 공공기관 전문가들은 상생협력을 더욱 강조하였고, 중소기업 담당자는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생산성 제고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중소기업이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규준수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CS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윤상용 외, 2017).

이채규·양동우(2018)는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 있는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문의 협력업체(중소벤처기업)를 대상으로 CSR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문화 유형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CSR 활동의 종류에 상관없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관계문화와 위계문화가 CSR 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성·강인원(2019)은 창업선도대학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이 조직몰입,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책임활동을 인사관리와 마케팅 측면으로 나누었고, 인사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 노동시간의 적정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공정한 가격정책과 공정한 홍보정책이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1> 중소기업의 CSR활동 관련 선행연구

저자	분석 대상	분석 방법	주요결과
Hammann et al. (2009)	독일 중소기업	다중 회귀 분석	CSR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기업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윤현덕 외 (2012)	중소 기업	다중 회귀 분석	공급망에서 협력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지가 높아짐
김은정 외 (2016)	중소 기업	구조 방정식	경제적 책임활동과 자선적 책임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윤상용 외 (2017)	CSR 산학연 전문가	AHP	CSR 평가체제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CSR 활동 참여가 중요함
이재규 양동우 (2018)	베트남 하노이 지역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문 협력업체	다중 회귀 분석	CSR 활동이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외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문화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인성·강인원 (2019)	창업보육 센터 입주한 중소벤처 기업	구조 방정식	노동시간의 적정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가격·홍보 정책은 조직신뢰를 향상시킴

## 2.2 DEA와 경영성과

DEA는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이하 DMU) 간에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비모수적 방법론으로써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었다. DEA는 모수적 방법론과 비교해서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다중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고려해서 하나의 효율성 값을 도출할 수 있다(Wang & Huang, 2007). 둘째, DMU의 비효율성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정성문, 2011). 셋째, 특정한 함수를 정의할 필요없이 분석이 가능하다. 정규분포나 선형성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DEA분석에는 요구되지 않는다(Guan et al., 2006; Martin-Cejas, 2002). 넷째, DEA에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추정해 주기 때문에 단위가 다른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정성문, 2011). DEA는 위와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 기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DMU를 대상으로 분석이 되어왔다.

대표적인 DEA 모형은 CCR모형과 BCC모형이 있다. CCR모형은 Charnes et al.(1978) 연구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투입요소 변화량과 산출요소 변화량이 동일한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이하 CRS)이다. BCC모형은 규모에 따라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가 다른 비율로 변화할 수 있는 규모수익가변(Variable Returns to Scale, 이하 VRS)이다. CCR모형과 BCC모형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규모 효과와 운영 성과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CCR모형 효율성에서 BCC모형 효율성을 나누면 규모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오동일, 2001). 각각의 DEA모형은 산출지향(Output-oriented)과 투입지향(Input-oriented)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산출지향은 투입요소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산출요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투입지향은 산출요소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EA에서 DMU선정과 변수 선정이 중요하다. DMU선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동질성이다. 통제변수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성이 비슷한 DMU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선정은 DEA 결과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사항이다. 변수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표성과 평가 목적 부합성이다. DMU개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가 정해지므로 평가 목적에 맞는 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성문, 2011).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들을 조사 및 정리하였다.

<표 2>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CSR 활동 관련 DEA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투입변수로는 종업원의 수, 자산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산출변수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의 자료를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모든 자원인 자산을 구성하는 부채총계와 자본총계를 투입변수로, 산출변수로는 매출액과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인 영업이익을 산출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2> 중소벤처기업의 CSR활동 관련 선행연구

저자	투입변수	산출변수
Liebman & Dhawan(2005)	종업원 수, 자본	경제적 부가가치
홍태호 외(2007)	종업원수, 총자산, 개발비, 판매비, 관리비	매출액
이창원(2009)	연구개발비, 경성비, 총자산, 종업원 수	직원 1인당 부가가치 성장률, 주당순이익, 순매출액, 주당 경영자본
송성환 외(2010)	고정자산, 인건비	영업이익, 매출액
황경연 구종순(2011)	자산,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Qin & Wu(2012)	종업원수, 자산, 운영비용	순이익, 영업이익
김세현(2015)	총자산, 시설투자비, 종업원 수	매출액
Ahmed et al.(2014)	종업원 수, 고정자산, 재고	매출총이익, 재고회전율
허귀룡 최석봉(2014)	종업원 수, 고정자산, 유동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홍기진(2015)	고정자산, 유동자산, 종업원 수	매출액
김근희·곽기호(2018)	종업원 수, 총 자산, 연구개발투자	매출액, 영업이익

## III.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공신력이 확보된 정부승인통계인 ‘201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35,187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2,059개 표본을 선정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의 성장단계 별 CSR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를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및 쇠퇴기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기업의 성장단계는 각 기업의 응답자들이 자각하고 있는 단계를 설문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원용하여 적용하였다.

기업의 CSR 활동은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CSR 활동 유형 구분을 위하여 최근 진행된 CSR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CSR 활동을 구분하였으나, 국내 기업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최근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임성환·박병식(2018)은 공기업의 CSR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문화·예술지원, 체육지원, 교육·학술지원, 지역사회개발, 기부협찬,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윤기창·전인오(2017)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브랜드자산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기부형과 봉사형 CSR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조재수 외(2019)은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CSR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활동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채규·양동우(2018)은 중소기업의 CSR 활동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윤리적, 경제적, 자선적 활동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하여 선행연구에 따라 포함 또는 미포함된 사례가 있다. 경제적 측면의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중요한 측면이나, 동시에 기업 경영 고유의 목적인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핵심 활동이다. 이는 CSR의 비판론적 입장에서 단순 CSR 활동이 아닌 경제적 목적과 연계된 CSR 활동만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고성천·박래수,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적 활동은 경영 자체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기업의 CSR 활동은 자선적 활동과 윤리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 CSR 활동기업, 자선적 CSR 활동 기업, 윤리적 CSR 활동 기업,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기업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가 활용한 벤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경우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하여 물질 기부/기증, 재능 기부, 윤리/투명경영, 공익연계 마케팅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후원활동으로 구분을 하였으며 이중 윤리/투명경영을 윤리적 CSR 활동으로, 그 이외의 활동은 자선적 CSR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아래 표는 CSR 유형 구분에 대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구분 유형을 정리한 표이다.

<표 3> CSR 유형 구분

연구	CSR 활동 구분
임성환·박병식 (2018)	문화·예술지원, 체육지원, 교육·학술지원, 지역사회개발, 기부협찬, 자원봉사활동
윤기창·전인오 (2017)	기부형, 봉사형
조재수 외 (2019)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이채규 양동우 (2018)	윤리적, 경제적, 자선적

DEA 방법론의 특성 상 투입 및 산출 변수에 음수가 존재한다면 분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 분석 시 산출 변수에 포함되는 영업이익이 음수인 기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성장단계에서 총 표본에서 영업이익 및 자본총계 음수 기업을 제외한 후 분석대상 기업을 확정하였다. 기업의 성장단계와 CSR 활동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원데이터에서의 결측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보는 <표 4>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표 4> DEA 분석을 위한 표본 선정

선정기준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 (개)	고도성장기 (개)	성숙기 및 쇠퇴기 (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기준 총 표본	282	983	794
영업이익 및 자본총계 음수기업 (-)	77	188	147
최종 선정 표본 기업 수	205	795	647

분석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입변수는 자본총계와 부채총계를, 산출변수로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설정하였다. DEA 분석을 위해 설정된 각 재무 변수들과 비교 변수인 CSR 활동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정보를 활용하였다. 각 변수별 요약 정보는 <표 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각 성장단계 별 CSR 활동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서 제시하였다. 기업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비 CSR활동 기업이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선적과 윤리적 CSR 활동 모두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벤치기업들의 경우 CSR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실행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은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성장단계 별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차이를 개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평균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총자산과 재무성과 모두가 증가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으나, 자산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크게 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를 살펴본다면 이 또한 기업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기업 간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벤치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경영성과에 CSR 활동이 미치는 영향의 규명을 위한 DEA를 활용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표 5> DEA 활용 변수 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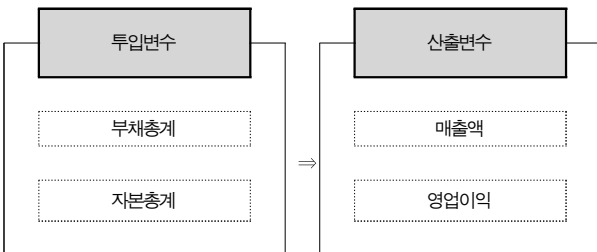
변수 구분	변수명	단위
투입 변수	부채총계	백만원
	자본총계	
산출 변수	매출액	
	영업이익	
비교 변수	CSR 활동 유형	비 CSR 활동 기업, 자선적 CSR 활동 기업, 윤리적 CSR 활동 기업,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기업
구분 변수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및 쇠퇴기

<표 6> 기업의 성장단계별 CSR 활동 유형 빈도분석 결과

CSR 활동 유형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 (개,%)	고도성장기 (개,%)	성숙기 및 쇠퇴기 (개,%)
비 CSR 활동기업	150(73.2)	542(68.2)	410(63.4)
자선적 CSR 활동 기업	24(11.7)	98(12.3)	83(12.8)
윤리적 CSR 활동 기업	24(11.7)	123(15.5)	114(17.6)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기업	7(3.4)	32(4.0)	40(6.2)

<표 7> 기업 성장단계 별 기술통계량 (단위 : 백만원)

구분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창업기 및 초기 성장기 (N=205)	부채총계	58.00	106282.00	3963.07	8838.03
	자본총계	12.00	404618.00	4783.53	29674.49
	매출액	163.00	161222.00	8856.65	17487.79
	영업이익	5.00	59486.00	841.63	4246.13
고도 성장기 (N=795)	부채총계	12.00	155536.00	7773.51	13193.34
	자본총계	27.00	231775.00	8012.91	19521.15
	매출액	118.00	356019.00	16402.23	27680.72
	영업이익	1.00	32447.00	1281.32	3204.73
성숙기 및 쇠퇴기 (N=647)	부채총계	47.00	245149.00	11274.04	19022.78
	자본총계	13.00	204837.00	12348.83	23442.03
	매출액	121.00	303437.00	23103.41	33761.78
	영업이익	1.00	39405.00	1827.38	4151.16



\* 분석구분 : 기업 성장단계  
\* 비교변수 : CSR 활동 유형

<그림 1> 연구 모형

#### IV. 분석결과

한국 벤처기업의 기업성장 단계 별 CSR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8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산출지향 CRS와 VRS DEA 모형을 적용하였고, 두 모형의 결과를 기반으로 규모 관점의 효율성을 추가로 산출하였다. 통상적으로 CRS 모형의 경우 분석대상의 운영 성과와 함께 규모에 따른 효과가 혼합되어 분석 결과가 산출되며, VRS 모형의 경우 규모에 의한 효과가 배제된 순수 운영 효율성이 도출된다. 이에 따라 CRS/VRS 로 산출되는 규모 관점의 효율성의 파악이 가능하며, 효율성 점수는 1 또는 1보다 작은 결과를 갖는다(오동일, 2001). 분석대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DEA 효율성 점수를 요약한 결과는 아래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8> 전체기업의 DEA 효율성 점수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모형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RS	.0074	1.0000	.117502	.1168890
VRS	.0137	1.0000	.241600	.1938536
CRS/VRS	.0669	1.0000	.546126	.2581873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모형 별 최소값은 0.1 미만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분석대상 기업들의 효율성 점수가 기업의 성장단계 및 CSR 활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개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정리한 결과가 <표 9>에 나타나있다.

<표 9> 전체기업의 성장단계 및 CSR 활동 유형에 따른 Kruskal-Wallis 검정 결과

구분	모형	Kruskal-Wallis의 H	자유도	유의확률
성장단계	CRS	24.904	2	0.000***
	VRS	6.635	2	0.036**
	CRS/VRS	94.452	2	0.000***
CSR 활동 유형	CRS	0.825	3	0.832
	VRS	41.284	3	0.000***
	CRS/VRS	54.902	3	0.000***

성장단계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CSR 활동 유형 또한 경영성과와 규모 효율성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CSR 활동과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성장단계가 거듭됨에 따라, 경영성과와 규모 효율성 모두 성숙기 및 쇠퇴기에서 가장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성장단계가 진행될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10>은 기업의 성장단계 구분에 따른 DEA 효율성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이다. 기업이 성장을 진행함에 따라 CRS 관점 성과는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VRS 관점 성과는 증가함에 따라 규모 효율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VRS는 효율성 분석 시 투입과 산출의 규모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성과 분석 시 반영하는 규모수익가변 모형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결과는 성장 단계에 따라 기업 규모가 성장할 시 경영의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별 전반적인 경영성과 분석에 더하여 CSR 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CSR 활동 유형을 비 CSR, 자선적 CSR, 윤리적 CSR, 자선적+윤리적 CSR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 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CSR 활동에 따른 경영성과 및 규모 효율성 점수의 차이는 고도성장기와 성숙기 및 쇠퇴기, 2개 성장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DEA 분석 결과

생존기간	모형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 (N=205)	CRS	.0132	1.0000	.148915	.1460016
	VRS	.0281	1.0000	.236100	.2120623
	CRS/VRS	.1927	1.0000	.675363	.2495381
고도성장기 (N=795)	CRS	.0146	1.0000	.118002	.1175500
	VRS	.0213	1.0000	.234663	.1864211
	CRS/VRS	.0921	1.0000	.563090	.2563329
성숙기 및 쇠퇴기 (N=647)	CRS	.0074	1.0000	.106934	.1033087
	VRS	.0137	1.0000	.251865	.1966242
	CRS/VRS	.0669	1.0000	.484332	.2448422

<표 11> 성장단계 별 CSR 활동에 따른 Kruskal-Wallis 검정 결과

생존기간	모형	Kruskal-Wallis의 H	자유도	유의확률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 (N=269)	CRS	1.837	3	0.598
	VRS	1.075	3	0.783
	CRS/VRS	4.109	3	0.250
고도성장기 (N=747)	CRS	4.231	3	0.238
	VRS	17.821	3	0.000***
	CRS/VRS	31.893	3	0.000***
성숙기 및 쇠퇴기 (N=740)	CRS	6.202	3	0.102
	VRS	25.352	3	0.000***
	CRS/VRS	17.531	3	0.001***

더욱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표 11>의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 고도성장기와 성숙기 및 쇠퇴기 단계의 경영 효율성 및 규모 효율성에 대하여 비모수적 데이터에 대한 사후분석 방법론인 Tamhane의 T2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고도성장기 단계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 효율성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기업이 0.34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규모 효율성 관점에서는 비 CSR 활동 기업의 점수가 0.59로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Tamhane의 T2 사후검정 결과 경영 효율성 관점에서 비 CSR 활동 기업은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기업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규모 효율성 관점에서 CSR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윤리적 CSR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우수한 성과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2> 고도성장기 기업의 CSR 활동에 따른 경영성과 및 규모효율성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모델	모형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VRS	비CSR 활동	.0220	1.0000	.218865	.1767857
	자선적 CSR 활동	.0219	1.0000	.257846	.2009884
	윤리적 CSR 활동	.0213	1.0000	.258448	.1881385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0593	.9988	.339813	.2434740
CRS / VRS	비CSR 활동	.1244	1.0000	.592409	.2490195
	자선적 CSR 활동	.1530	.9990	.540505	.2700498
	윤리적 CSR 활동	.0921	1.0000	.472341	.2453396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1598	.9978	.484485	.2828087

<표 13> 고도성장기 기업의 CSR 활동 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및 규모효율성 차이 사후분석

모델	CSR활동 유형(I)	CSR활동 유형(J)	평균차이 (I-J)	표준편차	유의확률
VRS	비 CSR 활동	자선적 CSR 활동	-.0389804	.0216765	.372
		윤리적 CSR 활동	-.0395825	.0185859	.190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1209481	.0437053	.054*
CRS / VRS	비 CSR 활동	자선적 CSR 활동	.0519045	.0293012	.389
		윤리적 CSR 활동	.1200677*	.0245718	.000***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1079246	.0511254	.228

<표 14>와 <표 15>는 성숙기 및 쇠퇴기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분석 결과이다. 앞서 살펴본 고도성장기와 유사한 패턴의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경영효율성 관점에서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기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규모효율성 관점에서는 비 CSR 활동 기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통계적 신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사후분석 결과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다. 비 CSR 활동 기업은 활동 유형과 무관하게 CSR 활

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경영 성과가 저조한 것이 밝혀졌다. 규모 효율성 관점에서는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기업보다 CSR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 CSR 활동 기업의 경영 효율성의 평균 점수가 낮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규모 효율성 관점에서의 분석결과, 비 CSR 활동 기업의 규모 효율성 점수는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기업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선적 그리고 윤리적 CSR 활동 기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성숙기 및 쇠퇴기 기업의 CSR 활동에 따른 경영성과 및 규모효율성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모델	모형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VRS	비CSR 활동	.0137	1.0000	.228237	.1854563
	자선적 CSR 활동	.0233	1.0000	.292294	.2196895
	윤리적 CSR 활동	.0218	.8815	.279391	.1851670
	자선적 + 윤리적 CSR 활동	.0666	1.0000	.331721	.2465082
CRS/VRS	비CSR 활동	.1074	1.0000	.503392	.2381979
	자선적 CSR 활동	.0669	.9968	.469756	.2755356
	윤리적 CSR 활동	.1011	.9994	.464334	.2394775
	자선적 + 윤리적 CSR 활동	.1605	.9565	.376210	.2339500

<표 15> 성숙기 및 쇠퇴기 기업의 CSR 활동 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및 규모효율성 차이 사후분석

모델	CSR활동 유형(I)	CSR활동 유형(J)	평균차이 (I-J)	표준편차	유의확률
VRS	비 CSR 활동	자선적 CSR 활동	-.0640570	.0257949	.084*
		윤리적 CSR 활동	-.0511539	.0196125	.058*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1034835	.0400380	.077*
CRS/VRS	비 CSR 활동	자선적 CSR 활동	.0336354	.0324512	.885
		윤리적 CSR 활동	.0390581	.0253269	.551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1271816*	.0388162	.012**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CSR 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진취적인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DEA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통계청 승인통계인 201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DEA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 변수로는 기업의 부채총계와 자본총계를 활용하였으며, 산출 변수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설정하였다. 기업의 성장단계는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및 쇠퇴기의 3개 단계로 구분하였고, CSR 활동 유형은 비 CSR 활동, 자선적 CSR 활동, 윤리적 CSR 활동, 자선적 + 윤리적 CSR 활동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산출지향 CRS와 VRS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규모효율성을 함께 산출하여

성장단계 별 CSR 활동 유형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와 CSR 활동 유형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동일 성장단계 내에서 CSR 활동 유형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벤처기업의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에는 CSR 활동 유형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시기에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경영활동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기업의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가 막 확보된 시기이며, 매출액 등 재무적 성과의 창출 및 성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해당 시기의 기업은 CSR 활동보다는 재무적 성과에 즉각적인 개선을 보일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에 속한 기업의 70% 이상이 비 CSR 활동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즉, 이 시기에 속한 벤처기업은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수익성이 우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도성장기와 성숙기 및 쇠퇴기 단계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성과는 CSR 활동을 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벤처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설 경우 CSR 활동은 실제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비 CSR 활동 기업과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기업 간의 효율성 점수 차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즉, 적극적인 CSR 활동이 경영성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생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도성장기에 위치한 기업들은 CSR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경영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성숙기 및 쇠퇴기에 위치한 기업들은 CSR 활동을 통해 단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며,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이에 대한 투자를 함께 계획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도성장기와 성숙기 및 쇠퇴기에 속한 기업들의 규모효율성은 비 CSR 활동 기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R 활동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자원의 투입이 불가피하며, 단기적 관점의 운영 효율 극대화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경영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해당 발전단계에 속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악화되거나 불안정할 경우 CSR 활동을 통한 기업 또는 제품의 가치 개선보다는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와 같은 본질적인 경영활동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고도성장기의 윤리적 CSR 활동 기업과 성숙기 및 쇠퇴기의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기업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윤리경영과 재무성과는 경영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대부분 정(+)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활동의 비용으로 인해 재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장성희, 2014).

이호갑 외(2011)은 윤리경영수준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간 재무적 성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수익성, 단기 유동성, 안정성 측면에서 윤리경영 수준이 높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우수함을 밝혔다. 양세영·박오수(2010)은 기업의 윤리 프로그램 운영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국내기업의 윤리경영이 이해관계자 만족도 개선에는 효과가 있으나, 재무성과에 대한 연관성은 떨어지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동향에 있어서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이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비 CSR 활동 기업이 고도성장기 시 윤리적 CSR 활동 기업, 성숙기 및 쇠퇴기에는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 기업보다 규모효율성이 우수한 것을 밝혔다. 추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더욱 자세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벤처기업의 윤리적 CSR 활동이 기업의 본질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리적 CSR 활동 및 자선적+윤리적 CSR 활동을 수행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관련 활동이 기업 내 임원진 및 전담부서만의 활동이 아닌, 전사적 활동으로써 자리잡고 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CSR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각 활동의 효과를 살펴본 진취적인 연구이다. CSR과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분석 결과에 있어서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규모, 국가, 분석시기 상이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으나, 기업의 성장단계 또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기업의 성장단계 상 CSR 활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는 고도성장기 이후임을 밝혔으며, 이 때 가장 적극적인 CSR 활동 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함을 규명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본 연구는 DEA 방법론을 활용하여 CSR과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지만, 다음의 한계점들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넓은 관점에서 진행된 탐색적 연구임에 따라 기업들의 업종 구분을 하지 못하였다. 업종에 따라 기업의 내부 및 외부환경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의 업종을 한국산업표준분류 또는 기술수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연구의 진행을 통한 더욱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CSR과 기업의 경영성과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미비하다. 추가 연구가 진행될 시 CSR 활동과 경영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에 대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전략적 지향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기업은 성장을 위하여 차별화 전략 또는 원가우위 전략을 지향할 수 있으며, 전략적 지향점에 따라 CSR 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전략을 고려하여 각 전략 내에서의 CSR 활동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고성천·박래수(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결정요인과 기업가치. *세무와 회계저널*, 12(2), 105-134.
- 김근희·곽기호(2018). 정부의 벤처기업 R&D 지원에서의 역선택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경영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1(4), 1366-1385.
- 김세현(2015). *국방벤처기업의 경영 효율성 향상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양대학교 대학원.
- 김은정·문용은·김종원(2016). 중소기업의 CSR 활동과 그 적합성이 기업이미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6(3), 195-213.
- 김익성(2006).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CSR 평가체계: 경영관리체계 내 통합과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경상논총*, 24(3), 113-141.
- 김종원·김승민·김은정·조수현(2010). 중소기업 CSR 적합성이 기업 명성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15(5), 247-258.
- 송성환·권성훈·홍순기·유경진·배영임(2010). 벤처기업의 효율성과 재무요인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영과학*, 27(1), 107-117.
- 양세영·박오수(2010). 기업의 윤리 프로그램 실행이 이해관계자 만족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9(6), 1505-1537.
- 오동일(2001). DEA 를 이용한 IMF 체제하의 우리나라 우량 상장 건설업체의 경영 효율성 평가와 관리적 시사점. *회계학연구*, 26(4), 27-61.
- 윤기창·전인오(2017).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활동이 브랜드자산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물류학회지*, 27(3), 109-124.
- 윤상용·임상수·조운형(2017).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평가체계 분석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20(3), 131-158.
- 윤현덕·성중수·서리빈(2012). 공급망경영 (SCM) 내 사회적책임이 중소기업 사회적책임 이행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2), 25-34.
- 이미순·최은식(2017). *중소기업 포커스: 1차 벤처붐시대, 벤처기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17-19)*.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 이인성·강인원(2019).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몰입,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2), 235-247.
- 이창원(2009). 중소벤처기업의 효율성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 분석.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09 춘계학술발표대회, 대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 이재규·양동우(2018).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JSBI)(구 벤처경영연구)*, 21(3), 77-92.
- 이호갑·박성환·여은미(2011). 윤리경영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 *한국 국제회계학회*, 38, 267-292.
- 임성환·박병식(2018). 공기업의 CSR 활동과 사회적 신뢰와의 관계 분석: 공기업 CSR 활동의 진정성과 적합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4), 411-435.
- 장성희(2014).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CSR 활동과 사회적 성과에 미



-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2), 117-127.
- 정성문(2011). DEA 모형을 활용한 국내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 6(2), 40-62.
- 조민기·김찬중·위난난(2014). 구성원이 지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평판의 매개효과. *전문경영인연구*, 17(4), 169-189.
- 조재수·이민순·곽연경(2019). 저비용항공사의 사회적 책임활동 유형이 연상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18(1), 165-190.
- 하귀룡·최석봉(2014). 비모수 검정을 활용한 자동차 기업의 상대적 경영 효율성 평가. *지식경영연구*, 15(2), 147-164.
- 홍기진(2015). *한국벤처기업의 효율성 변화에 대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 홍태호·박지영·김은미(2007). DEA와 logit을 이용한 IT 벤처기업의 효율성 평가.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7(3), 429-449.
- 황경연·구종순(2011). 국내외 컨테이너선사의 효율성 비교를 통한 국제경쟁력 평가. *통상정보연구*, 13(1), 123-144.
- Ahmed, M. U., Kristal, M. M., & Pagell, M.(2014). Impact of operational and marketing capabilities on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economic growth and downturn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154, 59-71.
- Charnes, A., Cooper, W. W., & Rhodes, E.(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6), 429-444.
- Cho, J. S., Lee, M. S., & Kwak, Y. K.(2019). The Influences of LCCs' CSR Activities on Associations and Royalty. *Journal of Hotel & Resort*, 18(1), 165-190.
- Cho, M. K., Kim, C. J., & Yu, N. N.(2014). Influence of Employees' Perceiv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Prestige.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17(4), 169-189.
- Guan, J. C., R. C. Yam., C. K. Mok., & N. Ma.(2006).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based on DEA model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70(3), 971-986.
- Ha, G. R., & Choi, S. B.(2014). The evaluation of relative management efficiency of automobile companies using non-parametric approach.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15(2), 147-164.
- Hammann, E. M., Habisch, A., & Pechlaner, H.(2009). Values that create value: socially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s in SMEs-empirical evidence from German companies.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18(1), 37-51.
- Hong, K. J.(2015).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n the Efficiency Change of Korean Venture Companies*. Doctor's thesis,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 Hong, T. H., Park, J. Y., & Kim, E. M.(2007). Using DEA-logit Approach to Evaluate Efficiency of IT Venture Business.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7(3), 429-449.
- Hwang, K. Y., & Koo, J. S.(2011). An Evaluation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and Global Container Shipping Compan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iciency.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3(1), 123-144.
- Jang, S. H.(2014). The Effects Social Entrepreneurship and CSR Activities on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117-127.
- Jung, S. M.(2011). A study on Efficiency Analysis for Photovoltaic Power Plants using DEA model in Korea. *Journal of Energy&Climate Change*, 6(2), 40-62.
- Kim, E. J., Moon, Y. E., & Kim, J. W.(2016). Impact of CSR Activity and the Fitnes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n Corporate Image and Purchase Intention.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6(3), 195-213.
- Kim, G. H., & Kwak, K. H.(2018). Adverse Selection in the Government R&D Support for Venture Business : Evidence from the Managerial Efficiency Comparison of the Recipient and Non-recipient of R&D Grants.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21(4), 1366-1385.
- Kim, J. W., Kim, S. M., Kim, E. J., & Cho, S. H.(2010).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it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n Corporate Reputation and Purchase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5(5), 247-258.
- Kim, I. S.(2006). CSR evaluation system for promoting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ocusing on the integration within the management system and practical scheme.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24(3), 113-141.
- Kim, S. H.(2015). *A study on improvement of management efficiency to defense venture business*. Doctor's thesis, Dongyang university.
- Ko, S. C., & Park, R. S.(201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rm Value.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2(2), 105-134.
- Lee, C. G., & Yang, D. W.(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SME's Management Strategi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Mediated Effect of Types of Corporate Organizational Culture.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21(3), 77-92.
- Lee, C. W.(2009). Sustainability Analysis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Firms by Evaluating Efficiency.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ogos management*, The 2009 spring Korean association of logos management conference, Daegu: The Korean association of logos management
- Lee, H. G., Park, S. W., & Yeo, E. M.(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thics and Financial Performance. *Korean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38, 267-292.
- Lee, I. S., & Kang, I. W.(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Trus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Focusing on Incorporation Companies in Business Incubat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235-247.

- Lee, M. S., & Choi, E. S.(2017). *SME focus : first venture boom era, performance of venture firms and policy implications(17-19)*. Seoul: KOSBI.
- Lieberman, M. B., & Dhawan, R.(2005). Assessing the resource base of Japanese and US auto producers: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Management Science*, 51(7), 1060-1075.
- Lim, S. H., & Park, B. S.(2018).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SR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 and Social Reliability: Focusing on Authentic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CSR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1(4), 411-435.
- Martín-Cejas, R. R.(2002). An approximation to the productive efficiency of the Spanish airports network through a deterministic cost frontier.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8(4), 233-238.
- O, D. I.(2001). Efficiency evaluation of well-performed listed construction companies during 3 years in the period of Korean financial crisis by DEA. *Korean Accounting Review*, 26(4), 27-61.
- Qin, Y., & Wu, Q.(2012). An Empirical Study on Operational Efficiency of Chinese Listed Logistics Corporations.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IEEE 2012, 2012 Fif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Computational Sciences and Optimization*, Harbin: IEEE.
- Song, S. H., Gwon, S. H., Hong, S. K., Yoo, K. J., & Bae, Y. I.(2010). The Analysis of Financial Factors and efficiency that influence on the Venture Business' Survival.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 27(1), 107-117.
- Wang, E. C., & Huang, W.(2007). Relative efficiency of R&D activities: A cross-country study accounting for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DEA approach. *Research Policy*, 36(2), 260-273.
- Wang, T., & Bansal, P.(2012). Social responsibility in new ventures: profiting from a long-term orient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3(10), 1135-1153.
- Yun, K. C., & Jeon, I. O.(2017).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y on the Brand Equity and Purchasing Intention. *KOREA LOGISTICS REVIEW*, 27(3), 109-124.
- Yang, S. Y., & Park, O. S.(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Corporate Ethics Program Implementation on Stakeholder's Satisfac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Korean management review*, 39(6), 1505-1537.
- Yoon, H. D., Sung, J. S., & Seo, R. B.(2012). The Effect of 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Supply Chain Management (SC-CSR) on the Willingness to Initiate CSR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2), 25-34.
- Yun, S. Y., Lim, S. S., & Cho, Y. H.(2017). Study on Evaluation System and Practice Strategy of SME's CSR.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20(3), 131-158.

# The Effect of CSR on Venture Companies' Managerial Performance: Considering Corporate Growth Stage\*

Dongphil Chun\*\*  
Chungwon Woo\*\*\*

##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s attempting to promote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venture firms that can lead to new national growth engines being developed. Although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cus on improving survival rates, strategic tools for sustainability management based on a continuing company's assumption are also relevant. Previous studies indicat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s an important strategic tool for the management of corporate sustainability. This research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seeks to empirically analyze the applicability of such CSR to venture firms. Existing previous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by large companies and surveys, and there are limitations that do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To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f previous studies and propose practical consequences,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raw data from government approval statistics to identify the growth stages of venture firms. Using the 2018 Survey of Korea Venture Firms, we identified the growth stages of domestic venture firms and used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SR activities on managerial efficiency. The analysis found that CSR during start-up and early growth cycles did not affect managerial performance. The organization that conducted enthusiastic CSR activities performed better than those that did not perform CSR activities since the rapid growth era. Ultimately, the scale efficiency of venture business was the highest from the rapid growth era when the CSR was not done. This study is a pioneering study that found that after the period of high growth, venture firms' CSR activities can affect managerial performan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dvise applicable policies and business decision-makers that CSR practices can be a tactical resource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management.

*Key words: Venture business, Managerial performance, Corporate growth stage, Data envelopment analysis, Ethical CSR, Philanthropic CSR*

\*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through the Human Resource Training Project for Regional Innovation (No.2017R1C1B5015674)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erformance@pknu.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woocw@stepi.re.kr